

## 7년 만에 맺은 결실...광주글로벌모터스 '시험생산 돌입'

지난 2014년 전국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탄생  
 차체 공장 시작 도장·조립공장 순 공장별 시험가동 진행  
 시험생산 거쳐 9월부터 1000cc급 경형 SUV 본격 양산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장건설과 설비 설치, 시험운전을 마치고 오는 9월 완성차 양산에 앞서 본격적인 시험생산에 착수했다. 지난 2014년 6월 노(勞)·사(使)·민(民)·정

(政)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4개 의제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지 7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5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따르면 이

날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12일 도장공장, 15일 조립공장 순으로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1000cc급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의 시험생산에 돌입한다.

자동차 생산 과정이 '차체→도장→조립공장'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장별로 시험생산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험생산은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실제 판매할 차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차를 생산하고 차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시험생산은 4월부터 오는 9월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할 때 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GM은 앞서 기술직 경력사원 53명과 베테랑 서포터즈 5명, 기술직 신입사원 186명을 선발하고, 현재 기술직 신입사원 137명을 모집 중이다.

신입 기술직 137명까지 채용이 완료되면 380여 명의 기술직 인력을 확보해, 양산 1교대 인력을 모두 충원하게 된다. 일반직 경력사원과 신입사원도 150여 명을 채용한 가운데 총

52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진다.

시험가동에 앞서 GGM은 인력 확보와 함께 차체 공장도 도장공장, 조립공장 등 3개 공장에 대한 가동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이날 가장 먼저 시험생산에 돌입한 차체 공장은 자동차의 기본 뼈대를 갖추는 작업을 한다. 주로 용접을 담당하는 118대의 로봇과 29명의 인력이 근무한다. 차체 공장은 대부분 지역 협력업체에서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는다.

도장공장은 자동차의 색상을 입히는 과정으로 38대의 로봇과 82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GGM의 도색 공정은 기존의 신나 대신 인체에 해가 없는 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립공장은 완성차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로 엔진 등 자동차의 각 부품을 조립해 완성차를 만들어 낸다.

GGM 조립공장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을 조립된 상태인 모듈로 공급받는 것과 달리 부품별로 공급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조립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시험장으로 옮겨져 온갖 성능을 시험하게 되고 마침내 완벽한 품질을 갖췄을 때 비로소 시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박광태 대표이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장 건설과 설비설치 시스템을 갖추고 시 운전을 거쳐 시험생산에 들어가게 돼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과 사명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대표이사는 이어 "시험생산에서 얼마나 완벽한 품질을 만들 수 있느냐가 양산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만큼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땀과 몸부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지난 2019년 12월 28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 공장 외부 건설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 2월 설비설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달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선운지구 황룡강 친수공원 유채꽃 만발 지난 4일 반가운 봄비가 그친 뒤 광주 선운지구 황룡강 친수공원 벚꽃사이로 유채꽃밭이 노란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끊임없이 이어져 산책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 농어촌공사 '전기료 50% 이상 절감' 김 건조기 설치 지원...경영개선 도움

#### 사업비 41억원 투입 8곳 설치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수산물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전기히터나 보일러 등 전기소비량이 많은 기존 김 건조설비를 에너지절감형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5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히트펌프를 설치한 전국 8개 김 가공시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히트펌프를 이용한 결과 전기요금은 기존대비 평균 51% 절감되고, 김 생산능력과 품질은 20% 향상됐다고 답변했

다. 실제 충남 서천에서 김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석진선 대표는 전기히터를 히트펌프로 교체한 후 매달 3000만원씩 나오던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였다.

여기에 53% 에너지 절감효과를 인정받아 한전의 히트펌프 설치 지원금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고흥에서 김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김정술 대표도 히트펌프 설치 후 김 건조시간이 짧아져 하루 생산량이 20% 이상 늘어나고, 상품성까지 향상돼 위판장에서 좋은 가격에 김을 출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업효과를 토대로 농어촌공사는 올해 총 사업비 41억원을 들여 김 가공시설 8곳에 '김 건조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광제 기자

### "식목일 3월 20일로"

#### 민형배 의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4월 5일인 현행 식목일을 나무 생육의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시민들 10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식목일을 앞당기는 내용의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고 식목일이 있는 주간에 '식목주간'으로 지정해 식목일이 휴일이 아니라도 식목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민 의원은 "식목일을 앞당기는 것 뿐만 아니라, 공휴일 지정으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목소리도 높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